

기세등등 롯데... '1위 대망론' 솔솔

상승세 주춤한 한화와 공동2위 삼성전 싸늘이 낡은 후 시키충천 선두 LG에 두 경기 차 바짝 추격 오늘부터 홈서 3연전 야심만만

이달 초순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의 주인공이 12연승을 질주하며 잠시 1위를 점령했던 한화 이글스라면, 최근 주인공은 롯데 자이언츠로 바뀌었다.



롯데는 17~18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 3연전을 모두 풀어 담아 28승 2무 18패, 승률 0.609로 리그 공동 2위로 도약했다.

롯데가 승패 차 +10 이상 기록한 건 2023년 5월 28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26승 16패)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이제 롯데와 리그 1위 LG 트윈스(30승 16패·승률 0.652)의 격차는 불과 2경기다.

2위 팀이 1위 팀과 간격을 좁힐 가장 좋은 방법은 맞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개막 2연전에서 LG에 2연패 하며 불안하게 시즌을 출발했던 롯데는 이후 강팀으로 변모한 뒤 가을야구를 향해 순항 중이다.

롯데가 오늘부터 22일까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LG와 3연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내심 1위를 노려볼 수 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18일 삼성전을 앞두고 20일 LG전에 우완 윤성빈이 선발로 등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7년 롯데 1차 지명 유망주 출신 윤성빈은 1군 무대에서 통산 2승 7패, 평균자책점 7.47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롯데 선수들이 1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6-3으로 승리한 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올 시즌은 퓨처스(2군) 리그에서 6경기 2승, 평균자책점 2.11로 호투를 펼쳤고, 5선발 자리에서 기회를 얻게 됐다.

선발 순서대로 롯데는 윤성빈이 출격한 뒤 나균안(21일), 박세웅(22일)을 차례로 내보낸다.

이에 맞서는 1위 LG는 지난주 6연승을 마감한 뒤 kt wiz와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밀리며 고전했다. 한화의 맹추격으로 잠시 1위를 잃었다가 되찾은 LG는 이제 공동 2위 롯데와 한화에 쫓기게 됐다.

LG의 주중 3연전 선발 투수 순서는 송승규-임찬규-손주영이다.

천신만고 끝에 임시 보급자리를 울산에 자리잡은 NC 다이노스는 한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른다. 6위 NC는 공동 4위로 전선을 구축한 KIA 타이거즈-SSG 랜더스와의 불과 반게임 뒤진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주 두산 베어스와 SSG를 만나 1승 5패로 밀렸던 한화는 NC를 상대로 재도약에 도전한다.

4위로 도약한 SSG는 두산과 방문 3연전을 치르고, 5월 들어 3승 13패로 극도의 부진에 빠진 8위 삼성은 최하위 키움과 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 맞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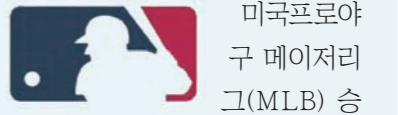
주말에는 1999년 한국시리즈 이후 26년만의 가을야구 동반 진출을 노리는 롯데와 한화의 대전 3연전이 하이라이트다. 두 팀의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롯데가 앞서 있다.

L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SSG와 주말 3연전을, 9위 두산은 NC와 잠실구장에서 홈 3연전을 각각 벌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돌아온 에드먼 살아남은 김혜성

다저스, 테일러는 방출키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승격 직후 불꽃 같은 타격 감각을 뽐내며 데이브 로버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감독으로부터 '요술 방망이'라는 찬사를 받은 김혜성(26·사진)이 생존에 성공했다.

한국계 내야수 토미 현수 에드먼이 부상으로 잠시 전열에서 이탈하는 동안에만 빅리그를 짧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했다.

다저스 구단은 19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을 앞두고 에드먼을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시켰다.

로스터에 자리를 마련하고 자 다저스는 베테랑 내야수 크리스 테일(34)을 방출대기 조치했다.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이한 김혜성은 4일 빅리그로 승격돼 14경기에서 타율 0.452(31타수 14안타), 1홈런, 5타점, 9득점, 3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065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올해로 다저스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한 테일러는 28경기 타율 0.200(35타수 7안타)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만 김혜성은 이날 에인절스전에는 결장했다. 에인절스가 일본인 원수 투수 기쿠치 유세이를 선발로 내면서 좌타자 김혜성은 벤치에서 대기했다.

다저스는 에인절스에 4-6으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투어 15승·메이저 3승... PGA 세플러 천하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가 1년 전 악몽으로 남았던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3승 쾌거를 이뤘다.

셰플러는 19일(한국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롤롭(파 71·762야드)에서 열린 제107회 PGA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우승했다.

챔피언십 압도적 우승... 니클라우스·우즈 이어 세 번째 진기록

마지막 18번 홀(파4) 보기를 했어도 공동 2위에 5타나 앞선 압도적 우승이었다.

그동안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2년과 2024년 마스터스에서 두 차례 우승했던 셰플러는 PGA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주는 위너메이커 트로피를 지켜주며 메이저

세 번째 타이틀을 따냈다.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2022년 마스터스에서 이번 대회까지 14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2회를 이뤘다.

최근 100년 사이에 자신의 첫 메이저 3승을 모두 3타 차 이상으로 장식한 선수는 세

플러 외에 세베 바예스테로스(스페인)가 유일하다. 만 29세가 되기 전에 투어 15승과 메이저 3승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도 2차 세계 대전 이후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에 이어 셰플러가 세 번째다.

1996년 6월생으로 만 28세 11개월인 셰플러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도 따내 사실상 메이저 4승을 수확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